

# Esteria

시나리오 & 스토리보드 설정

Team 더블 나인 식스(996)

작성자: 김 명 섭

# 1 시나리오

## #1 누워 있는 방안(낮)

침대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.

플레이어의 엄마 : (격양된 목소리로)너는 매일 핸드폰 게임만 할거면 나가서 알바라도 해!

플레이어 : (당당하게)하! 나는 세상을 구하고 있다고요!

플레이어의 엄마 : (체념한듯이)이젠 정신나간 소리까지 하는구나.. 정말 어쩌다 내 아이가 이렇게 된 걸까?

플레이어 : (문을 꽁 닫으며)잔소리 할거면 안들을래요!

플레이어의 엄마 : (단념한듯이)넌 이제 용돈이랑 밥 없어!

플레이어(독백) : 하.. 전역한지 얼마나 됐다고... 이제 겨우 5일인데 나도 게임하면서 몇일은 더 쉬고 싶다고..

나도 게임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지킨다면 알바 하라고도 안할건데...

돌아 눕던 플레이어가 침대 옆으로 핸드폰을 떨어트린다. 핸드폰을 찾기 위해 침대 밑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포탈이 있다.

플레이어 : (어이없다는 듯이)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허상이 보이는 건가? 하하 이게 뭐냐고!

플레이어가 포탈에 손을 대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빨려 들어가게 된다.

## #2 어딘지 알 수 없는 길 위(낮)

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이 세계에서 눈을 뜬 플레이어

플레이어 : 하 이게 뭐야.. 밤새 게임을 해서 잠시 기절한건가?

(옆을 둘러보며)근데 여기 내 방안이 아니자나!

(당황한듯이)잠시만 내 옷이 왜 이래? 내 팔다리는 왜 이런거고? 진짜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거였어?

의문의 여성 : 까아악!!!!

눈앞에 보이는 저택안에서 괴상한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온다.

플레이어 : (의구심을 가지며 몸을 일으키며)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?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건가?  
아니 내가 도울 수 있긴 한 걸까?

저택 방향으로 이동하며

플레이어 : (투덜대며)신체도 바뀌어서 제대로 걷기가 힘드네...

(자신감에 찬 말투로)그래도 뭔가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? 그래 해보는거야!

#3 저택 안(낮)

저택으로 플레이어가 들어오자 저택의 대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혀버렸다.

말라카르 : (의문의 남성의 먹살을 잡고) 빛의 목걸이를 내놓거라...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온 거니 당장 가지고 오거라

의문의남성 : (단호한듯이)절대 너 따위에게 넘겨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!!

말라카르 : (가소롭다는듯이)그럼 널 죽인 뒤에 가져가도록 하겠다!

의문의 남성은 죽음을 직감한지 모든 걸 체념하고 고개를 떨구다 플레이어를 발견하게 된다.

의문의 남성 : (놀란듯이)빛...빛의 기사님??

말라카르 : (어이없다는 듯이)죽기 직전에 환각이라도 보이는건가?

말라카르는 의문의 남성의 시선을 따라간다.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플레이어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.

말라카르 : (당황하며)진짜 빛의 기사자나? 어떻게 된거지?? 근데 힘이 아직은 없어 보이는구나? 지금 당장

죽여주마.

말라카르가 어둠의 스킬을 사용하였지만 알 수 없는 빛의 영혼들이 방어 결계를 형성해 주었다.

플레이어(독백) : (하얀결계를 만지며) 이게 뭐지? 내가 빛의 기사라고?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?

말라카르 : (공격이 막혀서 어이가 없다는 말투로)꼴에 빛의 기사라 이건가? 너가 힘을 얻으면 내가 위험에 빠지겠구나 널 영원히 여기 봉인하도록 하겠다.

말라카르는 하늘로 날아가면서 어둠의 봉인 주술을 사용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. 봉인 주술이 완성된 후 말라카르는 사악한 표정으로 플레이어를 바라보고 홀연히 사라지게 된다.

플레이어는 피를 흘리고 쓰러진 의문의 남성에게 달려간다.

플레이어 : (다급하게 절규하며)아저씨!! 아저씨!! 정신차려요!! 여기 병원이 어디있어요? 내가 데려다 줄게요! 정신차려요!! 아저씨!!

의문의 남성 : (피를 토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)괜찮습니다. 빛의 기사님이시여... 저는 알데비온 가문의 베르디올이라고 합니다. (쿨럭) 저희 가문은 빛의 기사님이 돌아오면 빛의 기사의 목걸이를 전해주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었습니다. (쿨럭쿨럭)

플레이어 : (흐느끼며)베르디올님 더 이상 말하지말아요!! 얼른 병원에 데려가 줄게요!!

베르디올 : (인자한 미소로)괜찮습니다 플레이어님..저는 얼마남지 않은 것 같아요. 병원이라는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고치는 곳이라면 여기서 뛰어가도 30분입니다.(쿨럭쿨럭) 제 임무는 완수하고 눈을감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(쿨럭쿨럭쿨럭)

플레이어 : (봉인된 결계를 향하며)베르디올님 반드시 제가 살려드릴게요!!

플레이어는 어둠의 결계에 손을 대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봉인을 해제하지못한다.

베르디올 : (더 작은 목소리로 빛의 목걸이를 꺼내며) 플레이어님 이것을 받아주세요!(쿨럭)

플레이어 : (다급하게 달려오며)이것은 무엇입니까?

베르디올 : 빛의 기사님이 착용하면 빛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되는 장비입니다... 저희는 사람마다의 오라를 느낄 수 있어서... 당신에게서 빛의 오라를 보게 되었고, 당신이 빛의 기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.(쿨럭) 이제 가져가십시오.. 기사님이시여... 마지막으로 기사님의 존함을 알 수 있을까요?

플레이어 : (흐느끼며)베르딕입니다...

베르디올 : (몸의 힘을 빼면서)베르딕님 부디 이세계의 어둠을 정화시켜주십시오...

베르디올은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고, 한동안 베르딕은 한손에 빛의 목걸이를 쥐고 절규하고 있다.

베르딕 : (목걸이를 착용하며)베르디올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어!! 죽는한이 있어도 꼭 복수 할거야!! 어둠을 정화할거야!!!

목걸이를 착용하니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온다.

??? : (신성한 목소리로)당신만을 기다렸습니다. 빛의 기사님이시여... 이제 빛의 힘을 운용할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힘의 크기를 늘려보세요... 저희는 기사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도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. 무운을 빌겠습니다...

베르딕 : (다급하게)잠시만!! 잠시만 기다려!!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!!

베르딕의 외침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. 이에 결심한듯 베르딕은 어둠의 결계를 풀기위해 시도를 하게 되었고, 아까와는 다르게 어둠의 결계에 빛의 결정들이 뭉쳐져서 길이 이어져 있었다. 그 길의 끝에는 알 수 없는 퍼즐이 있었지만 옆에 하얀 손이 나타나더니 퍼즐을 풀어주었다. 그 후에 어둠의 결계는 풀리게 되었고, 다시 맑은 하늘이 찾아왔다.

베르딕 : (결심한듯이)그래 밖으로 나가서 이 상황을 어딘가에 알려야 할 것 같아!!

닫혔던 대문을 밀어봤지만 열리지 않았다. 그러자 밑에 빛의 결정들이 경로를 알려주듯이 한줄기로 베르딕을 인도하고 있었다.

#### #4 뒷문

베르딕 : (놀란듯이)이 문앞에서 빛의 결정이 끊겼어... 이문으로 나가라는 건가? 그래 한번 나가보는 거야?

힘차게 문을 열자 문밖에는 광활한 자연이 펼쳐져 있었다. 신기한듯이 베르딕은 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압도적인 크기의 풍경에 넋을 놓고 감상하고 있었다.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 뒤에 베르딕이 열고 나온 문과

저택은 사라지고 없었다.

베르딕 : (어안이병병하게) 뭐야 문이 어디간거지?? 이게 무슨 상황이지?

아린 : (발랄하게) 모험가님이신가봐요~ 세상이 많이 흥흥한데 무기는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!! 이거라도 들고 다니세요!! 잠..잠시만!! 이 기운은?! 빛...의 기..사!!!

베르딕 : (늙은 칼을 받으며)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..칼을 다룰줄 모르거든요...

아린 : (통통튀는 말투로)진짜 기사님이자나! 어떻게 어떻게!! 나 빨리 자랑하러 가야겠다! 기사님 어서 가요!!

베르딕 : (비장하게)그래요! 어둠을 몰아내러 가보죠!!

## 2 스토리보드